

兩班諷刺의 展開樣相考

全 恩 瑛

目 次

1. 序 言
2. 兩班諷刺의 樣相
 - 2.1. 口碑文學, 漢文文學, 國文文學의 兩班諷刺
 - 2.2. 兩班諷刺 樣相의 比較
3. 兩班諷刺의 展開
 - 蔡萬植 「太平天下」
4. 結 語

1. 序 言

문학작품은 한 시대와 사회의 소산이며 반영이다. De Bonald의 “文學은 社會의 표현”이란¹⁾ 주장도 사회와 시대를 그리지 않는 문학이란 생각할 수 없

1) 丘仁煥·丘昌煥, 「文學概論」, 삼영사, 1976, p.66.

을 정도로 그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또한 문학작품에서 사회를 그리는 방법은 객관적 묘사방법과 비판적 현실묘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일반적으로 풍자의 양상을 띠는 예가 많다.²⁾

본고에서는 인간생활 특히 당대의 사회나 인간의 모순·부조리 등을 지적하고 조소하여 골계적 효과를 산출하는 문예의 한 양식인³⁾ 풍자가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兩班諷刺'라는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양반풍자'는 양반을 풍자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때 양반이란 조선시대 특권계층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사전적 의미이다. 그런데 풍자라는 것은 대상으로 내세워진 특정인물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편집광적 인물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면서 그 인물로 대표되는 일정한 범주의 사회문제를 꼬집는 양식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양반풍자라 할 때의 '양반'이란 말은 양반사회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양반이 아니면서도 양반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일군의 인물을 통해 양반사회 혹은 그 사회의 유습을 풍자한 작품까지를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양반풍자의 양상이 우리 문학 전반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료를 記錄文學에만 국한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口碑文學도 함께 다루어야 하고, 記錄文學에서도 國文文學 뿐만 아니라 漢文文學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능력이 허락하면 시가, 회곡 등으로 자료를 확대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를 이처럼 확대해서는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양반풍자의 범주에 드는 자료를 口碑文學에서는 鳳山탈춤의 「양반과장」, 記錄文學에서는 漢文文學인 朴趾源의 「兩班傳」, 國文文學인 「李春風傳」과 蔡萬植의 「太平天下」⁴⁾에 한정하도록 한다.

2) 위의 책, p.67.

3) 吳相泰, 「朴趾源小說作品의 諷刺性 研究」, 형설출판사, 1988, p.21.

4) 발표 당시 「天下太平春」이란 제목이 붙었으나 개작 발표시 「太平天下」로 고쳐졌는 바, 본고에서는 「太平天下」로 부르기로 한다.

우리 문학사에는 삼국시대의 「花王戒」, 「龜兔之說」 같은 설화에서 시작하여 고려시대의 「魏醇傳」, 「魏先生傳」, 「竹夫人傳」, 「楮生傳」 같은 假傳體文學, 조선시대의 時調, 雜歌, 판소리계 소설 등, 특히 燕岩 朴趾源의 諸小說, 그리고 近代 安國善의 「禽獸會議錄」 등을 비롯한 新小說에 이르기까지 풍자문학에 속하는 작품들이 많다.⁵⁾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반풍자'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양반과장」, 「兩班傳」, 「李春風傳」을 우선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또한 현대소설에서는 양반풍자의 양상을 살피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蔡萬植의 「太平天下」를 선택하게 되었다. 「太平天下」의 윤치원은 무너진 양반사회의 遺習을 이음으로써 일신의 입지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인물이나, 그의 행동거지 자체는 양반이 지켜야 할 법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단지 양반의 허세를 따르고자 할 뿐 내실을 다지지는 않는다. 즉 「太平天下」는 양반 혹은 양반사회를 직접적으로 풍자하는 것은 아니나, 이미 폐기된 양반사회의 유습을 쫓는 윤치원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풍자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함께 거론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양반풍자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그 시대·사회적 배경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兩班諷刺의 樣相

2.1. 口碑文學, 漢文文學, 國文文學의 兩班諷刺

2.1.1. 兩班諷刺의 時代·社會的 背景

풍자란 공격하려는 대상의 반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간접적, 우회적인 표

5) 權永錫, "朝鮮後期 小說의 諷刺性 考究",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7, p. 2.

현을 사용하는 것인데, 우회적이라 해서 반격을 무시해 버릴 수는 없기에 모순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비판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양반풍자의 배경에는 양반사회의 붕괴와 더불어 양반사회의 모순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반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임진·병자 양난이었다. 즉 조선왕조가 유교 이념을 국시로 나라를 세운 이래 性理學에서 비롯된 王道政治의 이념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더불어 班常의 엄격한 신분제도와 경제체제의 확립, 또 이에 따른 청렴결백의 兩班道の 확립으로 국가적 기반과 기강이 바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임진·병자의 난이 일어나자 국난에 대한 양반사회의 대응은 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무기력하였고, 양난 이후의 혼란으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피폐는 결과적으로 경제체제의 붕괴와 정치적 이념의 붕괴를 가져오는 혼란상을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혼란은 결국 새로운 가치관과 이념의 출현을 필연적으로 열망하기에 이르러 그동안 공소한 관원론에만 흐르던 性理學의 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청신하면서도 새로운 이념으로서 實學思想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후기에 이르러 지배계층 내의 모순과 증인층 및 농업, 상업의 성장으로 사회적 기존 질서 체제의 해체와 재구성이 진행되고 농민들의 저항으로 역사적 변화가 격화되자, 이에 따른 사회적 현실과 역사적 변화가 문학세계에 보다 예리하고 다양하게 투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결과가 곧 燕岩 朴趾源의 「兩班傳」·「許生傳」·「虎叱」 등이며, 또 고전문학의 대표작으로 꼽는 「春香傳」이다. 이들 작품을 통해 현실감 있는 사회상과 작중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사실주의적 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작품을 통해 드러난 현상은 소재의 현실화 외에도 서민 의식의 각성이 두드러지며 실제 생활수단으로서의 경제적 활동과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의 여러 모순이 적나라하게 풍자된 것이다.⁶⁾

6) 沈致烈, “李春風傳 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8, pp. 8~9.

兩班諷刺의 展開樣相考

이렇듯 조선후기의 신분제의 붕괴, 지배계층의 모순, 경제적 피폐 같은 혼란상은 실학사상의 대두와 민중의 각성을 가져왔다. 실학사상은 사회 각 방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고, 민중의 각성은 민중예술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게 되는 「양반과장」이나 「兩班傳」, 「李春風傳」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 거론되는데, 풍자·비판은 이행기 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2. 1. 2. 鳳山탈춤 「양반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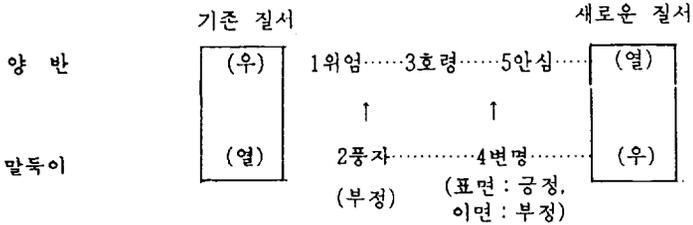
봉산탈춤의 「양반과장」은 상전인 양반과 그의 하인인 말독이 사이에 정상적인 지배, 복종 관계가 전도되어 양반이 열세에 몰린다는 내용이다.

- 1 兩班三兄弟 (말독이 뒤에 따라 점잔을 피우며 들어온다. 허나 어색한 느낌이 드는 점잔이다.)
- 2 말독이 쉬- 兩班 나오신다아. 兩班이라거니 老論 少論 吏曹 戶曹 玉堂 다 지내고 三政丞 六判書 다 지낸 退老宰相으로 계신 兩班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양이라는 양字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 3 兩班들 야 이놈 뭐야.
- 4 말독이 아아 이 兩班 어찌 듣는지 모르겠오. 老論 少論 吏曹 戶曹 玉堂을 다 지내고 三政丞 六判書를 다 지내고 退老宰相으로 계시는 李生員네 三兄弟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했오.
- 5 兩班들 李生員이라네.⁷⁾

이와 같은 「양반과장」을 대사의 내용에 따라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7) 沈雨農 編著, 鳳山탈춤, 「韓國의 民俗劇」, 創作과 批評社, 1975, pp. 235~236.

(1~5의 번호는 필자의 편의에 따름.)



여기에서 양반과 말독이의 정상적인 관계(1위엄)는 말독이의 도전으로 파괴된다(2풍자). 그리고 이러한 말독이의 도전에 양반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재재를 가하고(3호령), 이에 말독이는 표면상으로는 정상적인 관계로 환원하게 된다(4변명). 여기서 반어가 나타나는데, 양반은 이 반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상의 정상적인 관계로의 환원만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위를 지켰다고 안심하고 만다(5안심). 바로 여기에서 2와 4에서 계속되어 오던 양반에 대한 비하가 완결되고 끝내는 말독이에게 패배하고 마는 것이다.⁸⁾ 즉 표면적으로는 양반의 승리, 말독이의 패배처럼 보이고 말독이가 양반의 권위에 복종하는 듯하나 기실은 양반의 我田引水格인 사고방식과 체면의식을 이용한 조소에 찬 희롱인 것이다. 그리고 말독이의 야유가 욕설에 그치지 않고 풍자가 성립하는 것은 말독이의 변명을 양반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말독이의 양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엔 아무 변동이 없고 표면적인 복종으로 양반을 속이는 表裏不同의 二重性, 불일치, 부조리 때문이다.⁹⁾

이처럼 「양반과장」에서는 긍정적 인물인 말독이는 풍자주체가 되고, 부정적 인물인 양반은 풍자대상이 되는데, 풍자주체가 작품의 전면에 직접 등장하여 풍자대상에 도전하여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2. 1. 3. 漢文小說 「兩班傳」

「兩班傳」은 가난한 旌善兩班과 賤富가 ‘양반’을 매매하려다가 결국 천부가

8)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pp. 202~203.

9) 朴鎮泰, 「韓國假面劇研究」, 새문사, 1985, p. 203.

또한 이 작품에서는 읽기에 따라 풍자주체와 풍자대상을 달리 찾을 수 있겠으나¹⁰⁾, 등장인물 모두가 양반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즉 관찰사에 의해서는 “何物兩班”으로, 군수에 의해서는 ‘양반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내에 의해서는 “兩班不直一錢”으로, 그리고 천부에 의해서는 “將使我爲盜耶”, “終身不復言兩班之事”라는 것에서 양반사회가 부정, 풍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등장인물의 이면에는 작가의 풍자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수는 양반사회의 일원이면서 양반사회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반면, 양반사회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회를 동경하던 천부는 군수의 지적을 통하여 양반이 되는 것을 거부, 포기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시 말해 양반을 ‘神仙’ 같은 고상한 존재로 보던 천부가 그 실상을 자각하고 “已之已之孟浪哉將使我爲盜耶”라고 하면서 머리를 설레 설레 짓고는 한평생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은 양반이 상대하기조차 역겨운 차원 이하의 악질임을 풍자한 것이다.

2.1.4. 國文小說「李春風傳」

「李春風傳」에서는 방탕한 양반 남성¹¹⁾들의 호색과 실속없는 권위에 대한 풍자가 나타난다.

-
- 10)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양반사회에 편입하려는 천부가 군수에 의해 풍자된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군수가 풍자주체가 되고 천부는 풍자대상이 되는 데, 이것 역시 결국은 자기 폭로의 형식을 띠면서 양반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 11) 일부 논자들(張德順의 “李春風傳 研究”, 崔淑仁의 “李春風傳 研究”, 沈致烈的 “李春風傳 研究”, 孫炳宣의 “李春風傳 研究”에서)은 춘풍을 서민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장부 되어나서 문무간(文武間)에 힘을 써서 춘당대(春塘臺) 알성과(謁聖科)에 문무 참여하여 계수화(桂樹花)를 숙여 꽃고 청라삼(靑羅衫) 펼쳐 입고 영화 뵈고 후세에 이름 내어 장부의 사업을 하면 패가를 할지라도 무엄치나 아니할꼬” 하는 춘풍 아내의 말에서, 조선말기가 비록 혼란한 시기였지만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은 양반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춘풍을 양반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은 대부인과 평양감사의 등장은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면모이며, 이들로 인해 이춘풍과 아내의 위치가 전도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같은 춘풍과 아내의 위치 전도는 봉건사회에서의 기존의 남녀관계가 새롭게 성립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兩班諷刺 樣相의 比較

앞에서 본 것처럼 「양반과장」은 상전과 하인의 대결로, 말둑이가 양반을 비속화시키는 주체로 나서 반어를 통하여 양반의 고정관념을 풍자한다. 「兩班傳」은 양반 지위를 얻으려는 자와 양반 지위를 잃게 된 자를 대비시켜, 양반 지위를 양쪽이 모두 버린다고 하면서 양반의 허위의식, 명분을 풍자한다. 「李春風傳」은 양반 남성의 횡포와 여성의 활약을 대비시켜, 양반 남성이 쓸 데 없는 허세를 끝까지 부린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것이 각 작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인물간의 대결양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 품	문 계	기 존 질 서		새 로 운 질 서	
		우	열	우	열
양반과장	상 하	양 반	하 인	하 인	양 반
兩班傳	반 상	반	상	상	반
李春風傳	남 녀	남	여	여	남

각 작품에서 상하관계, 반상관계, 남녀관계를 통해서 양반사회의 모순을 다룬 각도에서 풍자하고 있다. 감히 생각지도 못한 도전이었기에 양반은 패배를 자각하지 못하고(양반과장), 생각지도 못한 능력 발휘였기에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려 한다(李春風傳). 여기에서 「양반과장」의 양반과 「李春風傳」의 이춘풍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류의 인물이다. 그런데 「兩班傳」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직접적인 풍자대상인 정선양반은 이춘풍과 동류라 해도, 군수는 양반사회의 모순을 알고 있으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양반사회 내부에서의 자각의 징후로 볼 수 있다.

「兩班傳」에서 보이는 양반사회의 내부적 자각의 징후는 이 작품의 작가인 박지원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향유층과 풍자의 양상이 무관하지 않다는 단서는 「양반과장」이나 「李春風傳」에도 적용시켜 봄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겠다.

구비문학인 「양반과장」의 향유층은 하층민이며 말득이는 이들의 대변자이다. 또한 공연장소와 극중장소의 일치, 풍자주체와 관중의 동류의식으로 인해 「양반과장」의 풍자가 철저해질 수 있었다. 즉 「양반과장」은 향유층이 하층민들이면서 처음부터 민중의 문학으로 자라난 것이다. 따라서 민중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호감을 줄 내용을 지닐 필요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의식의 성장된 모습만 충실하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조선후기 여러 가지 평민문학에서 나타나는 양반풍자라는 주제가 여기서처럼 직접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심화된 예는 찾기 어렵다.¹³⁾

또한 「양반과장」의 향유층이 하층민이라는 점은 이 작품의 풍자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즉 「양반과장」의 언어는 演劇의이며 卽興의이고 諷刺의이면서도 卑俗하고 喜劇的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양반과장」이 庶民들 특유의 재담에 이러한 여러 요소를 복합시켜 喜劇的 요소로 표출하려 했기 때문¹⁴⁾인데,

13) 조동일, 앞의 책, p.107.

14) 高榮淑, “海西假面劇研究: 鳳山탈춤을 中心으로”, 국민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5, p. 50.

이러한 예들은 작품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生員 이놈 말독아.

말독이 예예. 아이 재미를 붙을 兩班인지 좃반인지 허리 꺾어 折半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렘이전에 백반인지, 말독아, 꿀독아, 발가운데
쇠독아, 五六月 밀독아, 잘대독에 메독아, 부러진 다리 절독아, 胡
桃엿 장사 오는데 하내비 찻듯 왜 이리 찻소.¹⁵⁾

말독이는 卑俗語를 사용함으로써 극도의 존칭어를 쓰게 만드는 양반에 대한
반항과 구속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보이는 卑俗
語는 지배층에 대한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¹⁶⁾ 또
한

(가) 生員 …… 울록줄록 作大山하니 黃山豊山에 洞仙嶺이라.

(나) 書房 …… 집세기 앞층은 헌집층이요 나막신 뒷층은 거말못이라.

(다) 말독이 (곧 咏詩調로) 썩정 바자 구녕에 개대강이요 헌 바지 구녕에
좃대강이라.¹⁷⁾

(가)에선 漢詩를 짓는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꽤러디가 되어 버렸다. 즉 형식
만 비슷할 뿐 그 내용은 평범 이하인 것이다. (나)에선 아예 한시를 포기하고
'집세기, 나막신' 같은 비시적인 소재로 한시의 각운 맞추기에 급급하다. 그
리하여 말독이가 (다)에서 양반의 풍월에 도전하니, 노골적인 음담이 된다.
이것은 양반의 風月에 대한 통렬한 야유로, 결국 말독이가 양반의 詩句, 語法
등을 모방하여 양반의 권위를 전복시킴을 알 수 있다.¹⁸⁾ 그리고 이러한 卑俗
語, 욕설을 통해 身分的 上下關係를 무시하고 양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15) 沈雨晟, 앞의 책, p. 237.

16) 高榮淑, 앞의 논문, p. 57.

17) 沈雨晟, 앞의 책, p. 238.

18) 朴鑣泰, 앞의 책, pp. 205~206.

자아의 확립이라고 하는 근대적 서민정신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¹⁹⁾

「兩班傳」은 그 향유층이 지배계층이었으므로 표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판적인 어투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풍자정도가 철저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작품이 나타내려는 내용 그 자체는 풍자정도가 매우 철저하다. 풍자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풍자대상으로 삼는 것이라야 진정한 풍자라고 하겠는데, 「兩班傳」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또한 「兩班傳」은 기록문학이면서도 우리글이 아닌 한문으로 된 한문문학이므로 표현상 제약이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어, 속담 등을 사용하여 작품의 풍자적 효과를 한층 더 고조시켰고, 나름대로 구어체에 가깝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것은 “生平子好讀書無益縣官糶咄兩班兩班不直一錢”이라고 아내가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과 “飯母徒髻食母先羹歎母流聲下箸母舂母餌生慈”이라는 양반의 식사법 설명 등에서 볼 수 있다.

국문문학인 「李春風傳」은 양반사회의 부녀자들에게 향유되었는데, 양반 남성의 횡포가 집중적으로 비판될 수 있었던 것도 「李春風傳」이 그들만의 전유물이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성들의 횡포, 권위의식, 허세에 의해 여성들이 많은 수난을 겪던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춘풍을 풍자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춘풍 아내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서 매우 주목된다. 풍자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풍자보다는 작품 전체를 통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자정도는 철저하지 못하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구어체이지만 일상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어느 정도는 문어체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첫머리에 ‘화설’ 등이, 말머리를 돌릴 때에는 ‘각설’ 혹은 ‘차설’이 일률적으로 쓰이며 서술방식이 산문체인 여어체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즉 이 작품에서는 첫머리에 “숙종대왕 즉위 초에 …”라 하여 ‘화설’은 없으나 중간부분에 “각설 이때 춘풍의 처……” 하는 여어체 형식이 나타난다.²⁰⁾ 또한 이러한 것은 국문문학의 일반적 현상인 중국의

19) 高榮淑, 앞의 논문, p. 63.

20) 張德順, “李春風傳 研究”,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p. 269.

고사, 한자속어의 인용 등과 같은 한문어구의 도입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작가의 개입 양상을 보면, 「양반과장」과 「李春風傳」은 작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즉 「양반과장」의 말독이와 「李春風傳」의 춘풍의 아내는 작품의 풍자주체이면서 긍정적 인물인데, 이들의 입장이 이 작품의 관중이나 독자, 작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작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兩班傳」인 경우는 작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양반과장」, 「李春風傳」과 동일하나, 그 양상은 다르다. 「兩班傳」에서는 풍자주체와 풍자대상이 모두 양반인데, 독자층 역시 양반으로, 풍자되는 자신들의 모순, 부조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는 개입을 할 수 없다. 즉 같은 계층의 인물, 사회에 대해 풍자하려다 보니 작가의 의도와 같은 계층 사람들의 태도가 불일치하여 작가는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3. 兩班諷刺의 展開

— 蔡萬植 「太平天下」

양반풍자의 양상이 蔡萬植의 「太平天下」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 작품이 발표된 1930년대의 시대·사회적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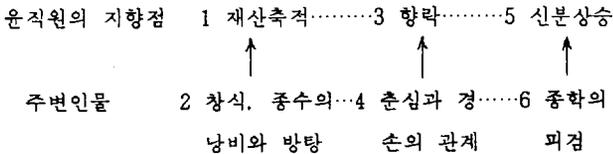
1930년대는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그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로, 일제의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었던 시기이다.

日帝는 이미 1910년에서 1918년까지 土地調査事業, 1924년에는 朝鮮農地令의 公布로 우리 農村에 대한 半封建的 착취를 감행하여 한반도를 窮乏化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舊身分制度의 지배층들을 官僚階級으로 吸收함으로써, 民族 에너지의 潛在力을 말살시키려 하였으며, 더우기 1930년 후반부터는 <內鮮一體>를 強要하고 新聞과 雜誌의 廢刊, 그리고 創氏改名을 強制로 하여 우리 民族을 抹殺하려 획책하였다.

이와 같은 歷史的 狀況 속에서의 1930년대는 混亂과 彷徨 속의 時代였던 만큼, 知識人들에게는 生存을 위협하는 당시의 社會와 膨脹한 수치심과 敗北意識이 그들을 사로 잡았던 時期였다.²¹⁾

한마디로 1930년대는 식민지하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이 위협받던 시기로, 역사의식의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이다. 이러한 때에 채만식은 확고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일제의 비참한 민족적 참상과 어둡고 냉혹한 현실사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려 나갔다. 즉 1930년대 후반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연으로 도피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려 할 때에 작가 채만식은 '풍자'라는 수법을 빌어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그의 시도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太平天下」에는 식민지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믿으면서 일신의 안락만을 얻고자 하는 윤직원을 등장시켜, 그의 역사의식의 부재를 풍자하고 있다.



윤직원에 대한 풍자는 특정 풍자주체 대신에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윤직원 자신의 기행을 살살이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서술자의 개입 양상은 「양반과장」, 「兩班傳」, 「李春風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작품 전면에서 직접적으로 풍자하는 서술자의 구실은 「양반과장」의 말둑이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구실을 하는 서술자는 풍자대상의 행동거지를 반어로 꼬집고 관중이나 독자의 공감을 얻어낸다. 즉 「太平天下」에서는 否定的 人物을 작품의 前面에 내세워 逆說의으로 肯定的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반면, 肯定的 人物은 後面에 내세우거나 戲畫化하여 否定的 人物에게 嘲笑의 대상으로 보여지

21) 金美惠, "蔡萬植小說의 諷刺性 考察",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5, pp. 18~20.

게 하는 데서 풍자가 이루어지는데²²⁾, 이러한 것은 결국 서술자의 개입에 의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를 풍자대상으로 전락케 하는 윤직원의 기행은 무지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그의 역사의식의 결여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잘 볼 수 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中略)…… 거리 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中略)……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집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땅땅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할이여, 응응?²³⁾

이처럼 풍자대상의 무지에 의해 풍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양반과장」, 「李春風傳」에서도 볼 수 있었던 양상인데, 채만식의 「痴叔」은 이러한 방식을 작품 전면에도 도입하여 효과를 얻고 있는 좋은 예이다.

요약하여 다시 말한다면, 풍자의 방법은 작중인물이 풍자주체로 나서거나 서술자가 풍자주체로 나서서 대상을 공격하는 방법과 풍자대상의 무지, 기행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풍자대상으로 전락케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양반과장」, 「李春風傳」, 「太平天下」인 경우는 이 두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痴叔」인 경우는 후자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太平天下」에서 보이는 풍자양상은 작품의 풍자방법, 특히 문체와도 많은 연관성을 지닌다. 즉 蔡萬植의 說話體文章, 反語法, 卑俗語의 사용은 작품의 풍자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먼저, 現實에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22) 崔成任, “蔡萬植의 「太平天下」에 나타난 諷刺性 研究”, 이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1, pp. 19~22.

23) 蔡萬植, 太平天下, 「蔡萬植選集」, 어문각, 1970, p. 398.

부정적인 現實의 한 옆에 비껴서서 그것을 批判하는 입장을 취한 蔡萬植의 作家的 姿勢와 對現實 자세는 그의 饒舌體, 說話體 文章과 不可不離의 관계에 있게 된다.

추석을 지나 이옥고, 질어 가는 가을 해가 저물기 쉬운 어느 날 석양.

저 계동(桂洞)의 이름난 장자(富翁) 윤직원(尹直員) 영감이 마침 어디 출입을 했다가 방금 인력거를 처억 잡숫고 돌아와 마약 댁의 대문 앞에서 내리는 참입니다.²⁴⁾

이것은 「太平天下」의 序頭인데, 作家가 作中話者가 되어 小說을 전개시켜 가는 方法으로 古代小說의 展開樣式인 파노라마적 手法을 연상케 하고, “...이지요”, “...읍니다”, “...겠지요” 등의 敬語로 된 문장의 語尾처리는 마치 작가가 독자와 직접 대면하여 말을 주고 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²⁵⁾ 즉 「태평천하」는 겉으로는 설화식으로 독자에게 친절한 문투를 사용하여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속으로는 독자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판소리의 서술방식이 교묘하게 얽혀있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수법은 또한 구비문학의 구연방식과 통하는 것으로, 작가와 독자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양반과장」과 연결이 된다.

또한 蔡萬植의 여러 作品에서 基調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반어>라고 할 수 있다. 「太平天下」에서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든가 “오죽이나 좋은 세상 이여?”, “이 太平天下에”로 표현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런 反語性은 점열의 눈을 속이는 수단이 되는데, 이것은 文體가 狀況과 表裏關係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文體와 狀況의 調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²⁷⁾

24) 蔡萬植, 위의 책, p. 287.

25) 金東奭, “蔡萬植小說의 研究: 社會意識과 文體를 中心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7, pp. 62~63.

26) 김성수, “이야기의 전통과 채만식 소설의 짜임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3, p. 56.

27) 金東奭, 앞의 논문, pp. 65~67.

이같은 반어는 극형식인 「양반과장」에서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대화에서 직접 나타나고, 고전소설인 「兩班傳」, 「李春風傳」에서는 전체적인 작품 전개에 따른 인물들의 행동양식에 의해 나타난다. 현대소설인 「太平天下」의 경우는 서술자의 설명과 묘사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것은 특히 「양반과장」에서 보이는 반어와 연관성을 갖는다. 즉 「양반과장」에서는 반어가 양반과 말둑이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그 우열의 관계가 전도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데, 「太平天下」에서도 반어가 비록 서술자의 설명과 묘사에 의해 나타나지만 풍자대상을 비판, 풍자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특히 「太平天下」는 그 제목에서부터 강한 반어성을 지닌다.

俚俗語의 빈번한 사용 역시 蔡萬植의 文體가 지니는 특질의 하나로, 이것은 주인공 尹直員의 인간됨됨과 그 一家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²⁸⁾에 의한 것이다.

윤직원 영감은 머느리더러 이렇게 욱을 하던 것입니다……(中略)——
 짝 찢을 년! …… 아, 그년은 글시 무엇하러 밤낮 그렇게 싸—댕긴다나? 모
 올라우! 옳다. 내가 모르넨디 뇌가 알 것이냐! …… 짝 찢을 년! 그년이 서방
 이 안 돌아부아 주닝게 오두가 나서 그러지, 오두가 나서 그리여!²⁹⁾
 저런년! 주둥아리 좀 부아!³⁰⁾

특히 윤직원이 아무를 향해서나 ‘잡아 뽑을 놈’, ‘짝 찢을 년’을 함부로 내
 뱉는 것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 특정한 목적의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
 나의 生理的 發散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갑작스런 身分
 上昇에 의해 急造上流層은 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教養 함양의 노력이 없었음
 을 패러디한 作家의 조작 결과이다.³¹⁾

28) 金東爽, 위의 논문, p. 70.

29) 蔡萬植, 앞의 책, p. 298.

30) 蔡萬植, 위의 책, p. 351.

31) 辛相雄, 「太平天下」의 諷刺構造 研究, 세종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0, p. 39.

이러한 비속어의 사용은 「양반과장」에서처럼 생동감과 민중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억눌린 자들의 잠재적 울분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이상 살펴본 「太平天下」의 문체를 요약하면, 「양반과장」의 무수한 과장, 욕설, 반어, 회화화 등의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풍자대상을 격하시키고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적 재미의 획득은 蔡萬植의 우리 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가능했던 것이고, 특히 그의 문체면에서의 성공은 전통적인 문체에로의 자연스러운 복귀를 통하여 소설적 흥미를 재생시켰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³²⁾

「太平天下」는 그 풍자정도에 있어서도 양반풍자의 주제성이 가장 철저하게 심화된 「양반과장」에 못지 않게 적나라하고 철저하다. 「太平天下」가 이처럼 그 풍자정도가 심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작품에 적절한 풍자방법의 활용에 못지 않게 투철한 작가정신이 함께 작용한 때문이다. 투철한 작가정신은 확고한 역사의식과 현실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면에서 「太平天下」의 작가 채만식은 철저하고 확고한 역사의식, 현실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신랄한 풍자가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채만식은 「양반과장」 등에서 보이는 풍자의 양상을 현대소설의 창작에 적절하게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閔完基, "판소리와 「太平天下」의 相同性 研究",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5. p. 66.

4. 結 語

이상과 같이 '양반풍자'라는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여 우리 문학에서 풍자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口碑文學인 「양반과장」, 漢文文學인 「兩班傳」, 國文文學인 「李春風傳」과 「太平天下」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걸어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반과장」, 「兩班傳」, 「李春風傳」, 「太平天下」에서 문제삼는 것은 결국 양반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이다.

둘째, 그 수법이 풍자인 만큼 그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기존의 상하관계, 반상관계, 남녀관계의 우열이 전도되어 나타난다.

셋째, 양반풍자는 기존 질서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양반사회 내부에 속한 인물이든간에 양반사회의 모순에 대한 자각이 있는 향유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서술자 또는 풍자주체에 의한 풍자와 대상 스스로 풍자대상으로 전락하는 풍자양식이 있는데, 채만식은 이 두 양식을 「太平天下」에 받아들이고, 후자의 방법을 「痴叔」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섯째, 채만식의 「太平天下」는 풍자방법 등의 여러 면에서 「양반과장」 등에서 보이는 풍자의 양상을 계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비문학, 한문문학, 국문문학에서의 양반풍자의 전개양상을 살펴봐왔는데, 양반풍자의 양상에 대한 논의를 다른 작품까지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면서, 본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參 考 文 獻

〈資 料〉

- 南廷賢 譯註, 李春風傳, 精選 韓國古典文學全集 11, 書榮出版社, 1978.
朴趾源, 兩班傳, 燕岩集, 啓明文化社, 1986.
沈雨晟 編著, 鳳山탈춤, 韓國의 民俗劇, 創作과 批評社, 1975.
蔡萬植, 太平天下, 蔡萬植選集, 語文閣, 1970.

〈單行本〉

- 金烈圭 外, 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金允植 編, 蔡萬植, 文學과 知性社, 1984.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朴鎮泰, 韓國假面劇研究, 새문사, 1985.
吳相泰, 朴趾源 小說作品의 諷刺性 研究, 螢雪出版社, 1988.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鄭炳昱·李御寧, 古典의 바다, 玄岩社, 1977.
鄭漢淑, 小說文章論, 高大出版部, 1973.
——, 現代韓國作家論, 高大出版部, 1976.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黃湏江, 朝鮮王朝小說研究, 檀大出版部, 1978.

〈論 文〉

- 高榮淑, 海西假面劇研究, 국민대 대학원, 1985.
權永錫, 朝鮮後期 小說의 諷刺性 考究, 동국대 교육대학원, 1987.
金東旻, 蔡萬植小說의 研究,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1987.
金美惠, 蔡萬植小說의 諷刺性 考察,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1985.

- 김성수, 이야기의 전통과 채만식 소설의 짜임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1983.
- 閔完基, 판소리와 「太平天下」의 相同性 研究, 한국외대 대학원, 1985.
- 朴箕錫, 朴趾源文學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85.
- 朴基遠, 燕岩과 蔡萬植의 諷刺小說 比較, 중앙대 대학원, 1977.
- 孫慶愛, 탈춤에 있어서의 疎外克服, 이대 대학원, 1984.
- 孫炳宣, 李春風傳 研究, 한양대 대학원, 1988.
- 辛相雄, 「太平天下」의 諷刺構造 研究, 세종대 대학원, 1980.
- 申相澈, 蔡萬植小說의 傳統性, 선청어문 11·12합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1.
- 沈致烈, 李春風傳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1988.
- 李來秀, 蔡萬植 小說研究, 동국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85.
- 李石來, 古典諷刺小說概觀, 성심여대 논문집 9집, 1978.
- 임학수, 蔡萬植 小說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1987.
- 崔成任, 蔡萬植의 太平天下에 나타난 諷刺性 研究, 이대 대학원, 1981.
- 崔淑仁, 「李春風傳」研究, 이화어문논집 5집, 이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2.
- 崔夏林, 蔡萬植과 그의 1930年代, 현대문학, 1973, 10.